알프스 산, 꽃길 거니는 자유 영혼.

알프스는 6 월이 봄의 절정

관광지 중심의 명소 찾기 여행은 이젠 그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만이 아는 숨겨진 매력 찾아보세요
도시에서 봄기운이 사라졌다면 알프스에 숨어든 봄 햇살을 찾아보세요
필라투스, 리기, 티틀리스, 슈토스에서 꽃길을 거닐어 보세요
체르마트의 허브 가든에서 건강한 내음을 맡아 보세요
아이가 있다면 쉴트호른 중턱의 꽃길 놀이터를 찾아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관광객들이 북적대는 명소 중심의 여행법보다는 좀 더 자연과 가깝고, 공간적인 여유가 느껴지는 여행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스위스 현지인들은 짧은 봄을 어떻게 즐길까? 관광대국에 살면서, 스위스의 매력을 속속들이 아는 현지인들은 관광객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즐긴다.

스위스 정부관광청은 앞으로 현지인들의 눈으로 본 스위스를 지속해서 소개해 나갈 예정인데, 이들이 선호하는 장소와 명소를 비롯해 숨겨진 공간을 살펴보게 된다. 전 세계를 여행하기 좋아하는 스위스 사람들이 꼽은 자기 동네의 매력에는 스위스 대한 그들의 사랑이 세심히 묻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스위스정부관광청 소개할 여러 가지 면모의 스위스 중, 이번에는 스위스의 알프스를 뒤늦게 찾아온 봄을 만나는 방법을 소개한다.

6 월 중순은 되어야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알프스 산자락은 조금이라도 햇살을 더 받아보려 애쓰는 식물들의 다채로운 빛깔에 눈이 부시다. 스위스 현지인들은 이 자연이 움트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 배낭을 꾸린다.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유모차까지 끌고 하이킹을 나서는 가족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알프스 산 속, 꽃길을 거니는 이들은 아이나 노인이나, 커플이나 나 홀로 거나 공통된 표정을 짓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이 깃든 해맑은 웃음 말이다.

1. 필라투스(Pilatus) 꽃길(Blumenpfad)
필라투스 봉우리가 솟아오른 고산지대에서는 참 다채로운 식물군을 만나볼 수 있다. 들꽃으로 빼곡한 정원을 닮은 풍경 속을 거닐어 나가면 식물의 종류와 개화기, 라틴어 이름까지 상세한 정보를 담은 상냥한 꽃길을 통과하게 된다.

이 꽃길은 정상에 있는 호텔 필라투스 쿨름(Hotel Pilatus Kulm)에서 시작해 톰리스호른(Tomlinshorn)에서 끝난다. 주요 능선의 남쪽 자락을 걷게 되는데, 전 구간에 걸쳐 안전장치가 잘 설비되어 있다. 톰리스호른으로 오르는 마지막 구간만 예외적으로 포장로다. 가는 길에 무척이나 다양한 종류의 꽃을 만나게 되는데, 꽃다지(whitlow grass), 초롱꽃속(bellflower), 담자리꽃(mountain avens), 디기탈리스(fairy foxglove) 같은 야생화도 볼 수 있다. 식물 이름과 색채, 개화기에 대해서는 정보 패널을 참고하면 된다. 이 트레일은 6 월에서 10 월까지만 개방된다.

이 꽃길은 필라투스 지역의 모든 알프스 식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 필라투스(Pro Pilatus)가 필라투스 철도와 함께 협력하여 만든 프로젝트다.

코스 길이: 1.5 km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난이도: 쉬움
총 소요 시간: 왕복 1 시간

왕복 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루체른(Luzern)에서 버스를 타고 크리엔스(Kriens)에서 하차한 뒤, 케이블카를 타고 필라투스 쿨름에 하차
돌아오는 길: 필라투스 쿨름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알프나흐슈타트(Alpnachstad)에 하차한 뒤,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으로 이동

2. 리기(Rigi)가 품은 신비한 자연 속으로
리기 산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코스로, 오감을 자극하는 하이킹 체험이 되어준다. 약 3 시간이 소요되는 가이드 동반 하이킹으로, 개화 시기에 따라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들꽃의 향연 외에도 리기 칼트바트(Rigi Kaltbad)에 마련된 캔첼리(Känzeli) 전망대에서 쉬어가며 환상적인 파노라마도 가득 담아볼 수 있다. 튼튼한 신발과 바람막이, 돋보기, 수첩이 필수인 여정이다.

이 꽃길은 리기 슈타펠(Rigi Staffel)에서 시작해 리기 슈타펠회헤(Rigi Staffelhöhe), 캔첼리(Känzeli), 리기 칼트바트(Rigi Kaltbad), 펠젠베그(Felsenweg)를 지나 리기 피르스트(Rigi First)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잘 다져진 포장로를 따라 이어지는 쉬운 트레일이다. 특히 리기 칼트바트와 리기 피르스트에 있는 트레일은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기에도 무리 없을 정도다.

이 꽃밭 투어는 리기 산에 사는 다채로운 식물을 찾아보며 리기 산의 흥미로운 지질학적 특성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 개화기면 약 200 종류의 식물이 꽃을 피우는데, 꽃길을 따라 푯말이 설치되어 있어 정보 습득이 편리하다. 이 중에는 스위스에서도 극히 희귀한 식물이 종종 있다. 리기 칼트바트에 있는 기차역에는 이 꽃길에 피어나는 꽃을 가득 담은 브로슈어가 있으니 하나 챙겨두면 좋다. 리기 칼트바트와 피르스트 사이에는 “산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리기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펠젠베그는 겨울에는 개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여름이면 그만큼 비밀스런 풍경을 펼쳐낸다. 하이킹을 마치면 구간 어디에서도 다시 케이블카나 기차를 탈 수 있어 편리하다.

코스 길이: 5.1 km
난이도: 쉬움
총 소요 시간: 약 2 시간

왕복 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비츠나우(Vitznau)나 아트골다우(Arth-Goldau)에서 리기 쿨름행 기차를 타고 리기 슈타펠에 하차
돌아오는 길: 리기 피르스트 근처에 있는 리기 뵐퍼첸 피르스트(Rigi Wölfertschen-First), 리기 클뢰슈털리(Rigi Klösterli), 혹은 리기 칼트바트(Rigi Kaltbad)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기차나 케이블카로 이동

3. 체르마트(Zermatt)의 리콜라(Ricola) 허브 가든

캔디로 유명한 리콜라가 재료 수급을 위해 운영하는 허브 가든이 체르마트에 있다. 가이드 투어도 진행한다. 일 년 내내 방문할 수 있는데, 허브꽃이 만발하는 5 월부터 9 월까지는 꼭 한 번 들러볼 만하다. 체르마트 마을 끝에 자리한 마터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행 케이블카 역 맞은편인 첸 슈테켄(Zen Stecken) 버스 정류장에서 30 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블라텐(Blatten) 마을에 위치해 있어 하이킹을 겸하기 좋다.

허브 가든은 작은 예배당과 산장 레스토랑 옆에 자리해 있는데, 리콜라 허브 사탕 한 알에 녹아있는 13 개지 허브에 대해 알아보며 허브 정원을 둘러보고 난 뒤, 식당을 찾아보기도 좋다.

허브 가든 입장료는 무료다.

코스 길이: 5.1 km
난이도: 쉬움
총 소요 시간: 약 2 시간

왕복 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체르마트 기차역에서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를 따라 걷다가, 오버도르프슈트라쎄(Oberdorfstrasse)를 따라 이어 걷는다. 첸 슈텍켄슈트라쎄(Zen Steckenstrasse)로 계속 직진하다 보면 허브 가든이 등장한다. 걷는 데 총 40 여 분 소요된다.
돌아오는 길: 다시 걸어서 체르마트 마을까지 이동

4. 알멘드후벨(Allmendhubel) 꽃길
쉴트호른(Schilthorn)으로 오르는 케이블카가 있는 뮈렌(Mürren)에서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알멘드후벨(Allmendhubel)에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서 꽃길이 시작된다. 먼저, 이 꽃길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이킹을 시작할 수 있다.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되는 길로,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6 월부터 9 월까지 150 종류가 넘는 알프스 야생화가 피어나 그 절정에 달한다. 알펜로즈(Alpine Roses)와 에델바이스(Edelweiss)를 볼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때다. 특히, 새롭게 단장한 어드벤처 놀이터는 동네 아이들과 놀러 온 아이들로 분주하다. 대형 곤충과 대형 알프스 꽃과 식물이 마련되어 있어 사진찍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나비가 날아다니고, 마못 굴을 찾아볼 수 있고, 우유를 짜고 치즈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놀이 공간도 있어 가족 단위 여행자들에게 인기다.

알멘드후벨(1907m) - 블루멘탈(1850m) – 뮈렌(1638m) -김멜발트(1363m)
알멘드후벨에서 꽃길 산책을 마치면 본격적인 하이킹에 나서보자. 뮈렌을 거쳐 김멜발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알멘드후벨에서 시작하는 하이킹로는 블루멘탈 계곡을 지나 뮈렌까지 이어진다. 중간에는 펜션 손넨베르그(Pension Sonnenberg)나 수펜알프(Suppenalp)같은 산장 레스토랑이 몇 군데 있어 잠시 쉬어가며 소박하지만 맛깔난 점심이나 간식을 즐겨도 좋다. 뮈렌까지 약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뮈렌에서 김멜발트까지 역시 약 45 분 정도 소요되는데, 코스 대부분이 포장된 내리막길이다. 우천 시에도 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길이지만 경치만큼은 빼어나 누구에게든 추천할 수 있다. 코스 중간 중간에 융프라우(Jungfrau), 묀히(Mönch), 아이거(Eiger) 봉우리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길의 매력이다. 유명 코스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명봉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코스로도 유명하다. 김멜발트 역에 도착하면 뮈렌으로 돌아가거나 슈테헬베르크(Stechelberg)까지 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

구간별 정보

알멘드후벨 꽃길
코스 길이 400m
소요 시간 20 분
난이도 쉬움

알멘드후벨 – 블루멘탈 – 뮈렌
코스 길이 2.5 km
소요 시간 1.5 시간
난이도 쉬움 – 중간

뮈렌 - 김멜발트
코스 길이 2.3 km
소요 시간 45 분
난이도 쉬움

왕복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뮈렌에서 퓨니큘러를 타고 알멘드후벨까지 이동
돌아오는 길: 김멜발트 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뮈렌까지 가거나, 슈테헬베르크까지 이동한 뒤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 역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기차를 타고 인터라켄(Interlaken)으로 이동

5. 티틀리스(Titlis) 트뤱제(Trübsee) - 엥겔베르크(Engelberg)
티틀리스 산을 가기 위한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마을, 엥겔베르크는 '천사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다. 여기에서 티틀리스 로테어(Rotair)라는 360 도 회전식 케이블카를 타고 구름을 뚫고 나가 산 정상까지 오르면 중앙 스위스에 펼쳐진 알프스 설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하이킹을 하고 싶다면 정상에서 케이블카를 내려오는 길 중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엥겔베르크와 티틀리스 정상의 중간에 위치한 트뤱제 호수 역에서 시작되는 트레일은 플로라 트레일(Alpine Flora Trail)이라는 꽃길로, 아름다운 야생화를 감상하며 오버트뤱제(Obertrübsee)로 향하게 된다. 오버트뤱제에서 하이킹을 계속 이어가 운터트뤱제(Untertrübsee)를 지나 알프스 숲과 들판이 펼쳐지는 장관을 감상하며 엥겔베르크까지 하이킹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걷는 내내 알프스의 봉우리와 초록 풍경이 사방을 에워싸는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코스 길이: 7.5 km
난이도: 중간
총 소요 시간: 4 시간

왕복 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루체른(Luzern)에서 기차를 타고 엥겔베르크까지 간 뒤, 티틀리스행 케이블카를 타고 트뤱제 역에 하차
돌아오는 길: 엥겔베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루체른으로 이동

6. 슈토스(Stoos) 산의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 능선 코스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에 있는 슈토스 산에는 능선 코스인 플론알프슈톡 하이킹 코스가 있다. 스위스에서도 이 능선 코스는 아름답고 클래식한 파노라마 코스로 소문이 자자하다. 열 개가 넘는

호수의 풍경과 중앙 스위스의 셀 수 없는 알프스 봉우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무엇보다 초록 들판 위를 장식한 파스텔 빛깔 들꽃의 향연이 감탄스럽다.
리멘슈탈덴(Riemenstalden) 계곡과 우리(Uri) 호수의 파노라마도 이어진다. 슈토스에서 내려다보이는 중앙 스위스의 알프스 파노라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루체른 근교의 슈토스를 찾아간 뒤, 마을을 조금 걸으면 나오는 체어리프트를 타고 클링에슈톡(Klingenstock)에 내리면 플론알프슈톡까지 이어지는 능선 하이킹 코스가 나온다. 로트 투름(Rot Turm)을 지나 놀렌(Nollen) 방향으로 이어지는 능선 코스는 360 도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후저슈톡(Huserstock) 뒤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푸르그겔리(Furggeli)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이 길의 일부는 암석을 깎아 만든 것으로, 스틸로 만들어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안전하다. 푸르그겔리에 있는 알프스 오두막에서 마지막 오르막길을 오르면 슈비츠 칸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이 나온다. 이곳이 바로 프론알프슈톡의 정상이다. 약 2 시간 30 분간의 황홀한 하이킹이 끝나면 다시 체어리프트를 타고 슈토스로 내려오면 된다. 이 능선 코스 전체는 두 명이 걷거나 지나치기에 충분한 너비이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좋다.

코스 길이: 5 km
난이도: 중간
총 소요 시간: 2 시간 30 분

왕복 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루체른에서 기차를 타고 슈비츠(Schwyz)에 내린 뒤, 퓨니큘러를 타고 슈토스에 하차. 마을 내 체어리프트를 타고 클링에슈톡에 하차
돌아오는 길: 프론알프슈톡에서 체어리프트를 타고 슈토스로 내려온 뒤, 슈비츠까지 퓨니큘러를, 이후 기차를 타고 루체른으로 이동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